

### 민선 4기 출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박희현 해남군수

박연수 진도군수

## 회원조선단지 완성되면 2만여명 인구 유입 효과

## 바이오 가공산업 육성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손재홍·나종천·김동식·김월출·조광항·이상동·송재선·김남일·이명재(왼쪽 아래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의원이 19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명재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시의회 정상가동

‘의장단 선출’ 향의 상임위 보이콧 의원들 복귀

의장단 선출 과정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던 제5대 광주시의회가 19일부터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이 불법이라며 의회운영을 보이콧했던 나종천·손재홍 의원 등 9명은 18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 활동에 참여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광주시의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의회 운영 방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수와 10명의 의원으로만 파행 운영되던 광주시의회는 19일 상임위별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상화의 길을 열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1일 심야에 신성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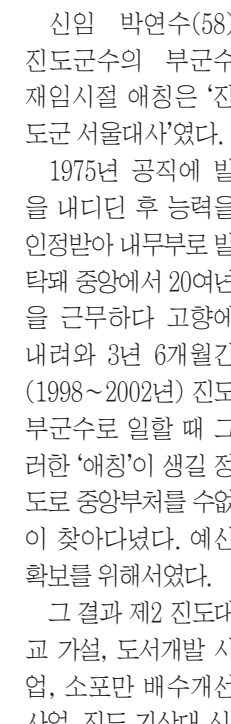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

‘테마형 관광상품’ 적극 개발

“이제는 9만 군민이 하나로 합쳐 지역 해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가 중요 과제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희현(62) 해남군수는 민선 4기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지역개발과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군수는 보궐선거에 당선돼 전임 군수의 잔여 임기 1년8개월여 동안 군정을 수행해오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4년간의 새로운 임기를 맞았다. 박 군수는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찬 해남”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진흥 ▲머물고 가는 문화관광 구현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현 등을 주요 시책으로 내세웠다. 박 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원조선소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약 5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2만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더욱 확대해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다는 여론에 따라 현재 우슬체육공원에 추진중인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기 완공해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 지역경제에 한몫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남읍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 상가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5일 시장과 매일 시장을 더욱 현대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도 크게

확보할 계획이다. 박 군수는 관광산업 진흥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해남만이 가지고 있는 ‘테마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 현재 추진중인 우항리 공룡박물관은 오는 10월에 개관해서 관광활성화에 불을 지핀다는 것이다. 현재 해남군의 전체적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땅갈권과 대항사권, 우수영권과 우항리권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자고가는 해남을 만드느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지난해 ‘우수영 명량대첩제’가 해남의 대표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이를 적극 개발해 1천만 관광객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박 군수는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50%대 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노인, 아동, 장애우 등 취약한 기반시설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구상해 기업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실버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저소득층과 장애우 등 어려운 군민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여성복지 시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며 지역학생들을 외지로 유학 보내지 않는 방안으로 제2의 인문고를 신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남=박정목기자 jopark@kwangju.co.kr



기업·투자 유치 활동 계속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신임 박연수(58) 진도군수의 부군수 재임시절 애칭은 ‘진도군 서울대사’였다. 1975년 공직에 발을 내디딘 후 능력을 인정받아 내부부서 발탁돼 중앙에서 20여년을 근무하다 고향에 내려와 3년 6개월간(1998~2002년) 진도 부군수로 일할 때 그러한 ‘애칭’이 생길 정도로 중앙부처를 수없이 찾아다녔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였다. 그 결과 제2 진도대학교 가설, 도서개발 사업, 소포만 배수개선 사업, 진도 기상대 신축, 국립 남도국악원·해양생태관 건립 등 군민들의 숙원사업비를 하나하나 따냈다. 박 군수는 지난 1일 취임 이후에도 열흘사이 두 차례나 서울을 방문할 정도로 부산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6~7일에는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따내기 위해 중앙부처를 찾았고, 12일에는 롯데 해운유 본사를 방문해 유통 협의를 벌였다. 13일에는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전남도 공동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주)아스트로 코리아와 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투자협약을, 농수특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해 (주)중소기업유통센터와 투자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박 군수는 “집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군정의 최우선 목표”라며 바이오 가공산업 육성, 재래시장 현대화, 진도를 철마광장 아리랑공원 조성, 진도홍주 명품화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가 되살아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산



기업·투자 유치 활동 계속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작목 발굴, 경쟁력 있는 작목(지초·울금·한라봉·부추·개구리참외)의 대규모 시설단지 조성, 진도 김 등 군 고유의 브랜드 농수산물 개발,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민선 4기 군정목표를 ‘함께하는 군정, 잘사는 진도’로, 군정방향으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차별화된 문화관광 ▲참여하는 주민복지 ▲역동적인 혁신 행정을 정했다. 박 군수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룬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녹진관·회동관·진도읍관·금강관·세방관·다도해관 등 테마별, 권역별로 개발전략을 강구해 관광력 기호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가 23%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해 ‘노인 공경(恭敬)군’으로 널리 알려진 진도를 ‘행복 주식회사’로 불리워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정든 고향을 버리고 대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학교 육성, 우수교사 영입, 최신 도서관 시설 등 교육문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 군수는 “그동안 군정은 권위주의적 지시행정, 상명하복의 맹종주의적인 경직된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 5·3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원금 얼마나 모금했나

광역단체장	후원금	박종영 지사	후원금
박광태 시장	3억1026만원	박종영 지사	3억9381만원
5·31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광역단체장 후보자 후원금 모금액과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도액 대비 상위 10위에 박광태 광주시장(2위)과 박종영 전남지사(7위), 조영택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9위) 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8만원으로 집계됐다. 후원회당 평균 2억2천943만원을 모금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5·31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은 모금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의 50%)의 99.9%인 3억1천266만원을, 박 지사는 60.9%인 3억9천381만원을 모금했다.		또한 5·31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들은 총 4천566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 후보는 한도액의 59.1%인 1억8천350만원을 모금해 9위에 올랐다.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 등 정치자금(1천144여원)을 제외한 순수 선거비용 지출액은 선거비용제한액(6천919억6천700만원)의 58.6% 수준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의 1천841억4천200만원에 비해 2.2배 높은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후보 66명중 50명이 후원회를 두었고, 모금총액은 114억7천		선관위는 오는 10월 9일까지 시·도선관위를 통해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공천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비용 불법지출 여부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70% 에너지 절감. 팀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에어컨·난방기류 1대로. 70% 이상 절감한다. 2년 전 분양기로 내 집 마련하세요!!

들어오세요! 마지막 분양 - 34평형. 2년 전 분양기로 내 집 마련하세요!!